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## 미국 의료보험제도 개혁 논의

- 상원 보건위원회(Senate Health Committee)는 상원 의료보험개혁안을 승인하였고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하원의 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8월회기 내에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양 의회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.
  - 지난 7월 16일 상원 보건위원회는 공화당의원 모두가 개혁안에 반대하는 가운데 과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 위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서 의료보험개혁안을 승인함.
  - 상원의 개혁안은 2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직원 의료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 1인당 연간 750달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.
  - 또한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지난 7월 14일 의료보험개혁안을 발표했으며 현재 각 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음.
- 의료보험개혁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안과 관계된 각 소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양 의회에서 모두 개혁안이 통과되어야하며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함.
  - 개혁안과 관련된 하원 세무위원회(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)와 교육·노동위원회(House Education and Labor committee)는 각각 비용 조달 문제와 근로자 보건복지 문제에 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음.
  - 상원의 경우 보건위원회는 이미 개혁안을 승인한 바 있으며, 재무위원회(Senate Finance Committee)는 1조원에 달하는 비용의 조달방법을 논의 중에 있음.
  - 양 의회는 모두 8월 이전에 개혁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양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임.
  - 만약 8월회기 내에 개혁안이 통과된다면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9월 중 상원과 하원의 개혁안을 절충하게 되고 각 의회가 절충안에 찬성하게 되면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 후 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됨.

(Insurance Journal 등, 7/17)